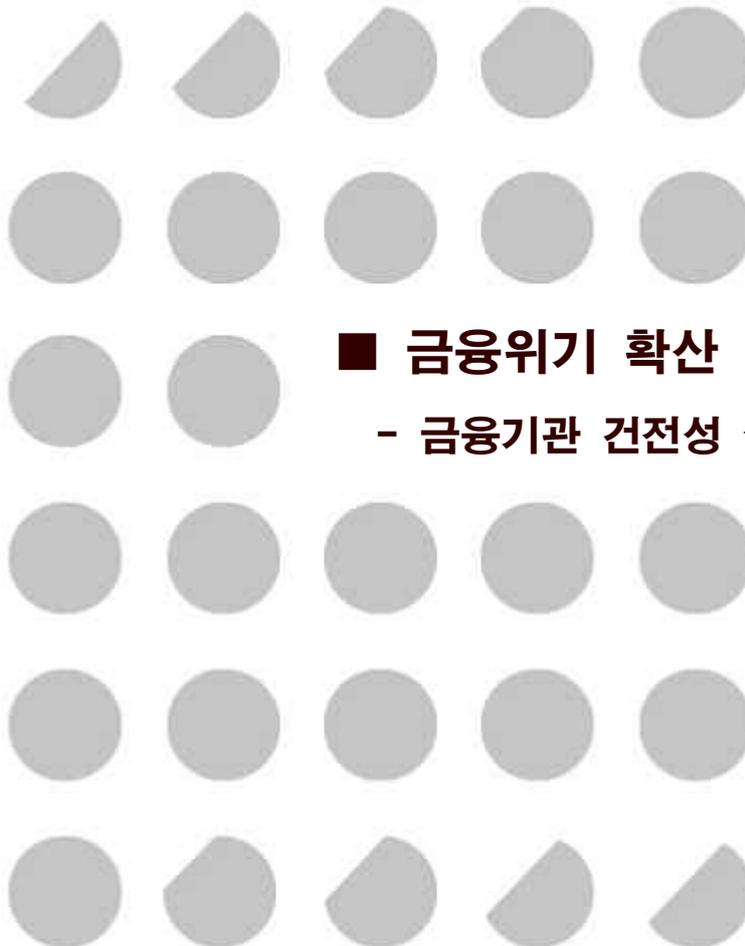




08-45 (통권 323호)

2008.1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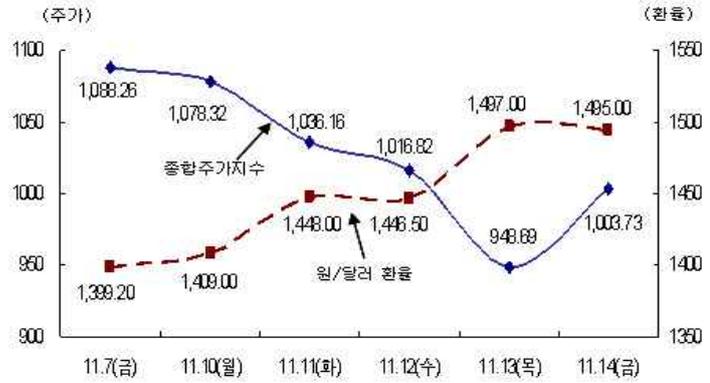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금융위기 확산 방지 대책
- 금융기관 건전성 실상과 시사점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14~11.21)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금융위기 확산 방지 대책	
- 금융기관 건전성 실상과 시사점	1
주간 경제 동향	18
□ 실물 부문 : 10월 수출 한 자릿수 증가율 기록	18
□ 금융 부문 : 금융시장 혼조세 재연	19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금융경제실 : 현 석 원 연구 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 조 호 정 연구 원 (3669-4047, chjss@hri.co.kr)

Executive Summary

□ 금융위기 확산 방지 대책 - 금융기관 건전성 실상과 시사점

1.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최근 국내 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우선 BIS자기자본비율은 2008년 9월말 10.79%로 2008년 6월말 대비 0.57%p 하락하였으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08년 1~9월중 8.4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8조 원 급감하였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전망도 하향 조정하였다.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Fitch)사는 11월 10일 국가 '신용등급전망'을 부정적인 것으로 낮춘 이후, 11일에는 '은행 및 제2금융권'에 대한 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2. 금융기관 건전성 결정 요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대내외 여건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병존한다.

■ 긍정적 요인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긍정 요인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은행 연체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은행 연체율은 2008년 9월말 0.97%로 2003년말 카드 대란 때인 2%보다 낮은 수치이다. 또한 미국 상업은행의 2008년 9월말 연체율인 3.64%에 비하면 매우 낮다. 한편, 국내은행의 부문별 부실채권 비중도 2003년 카드 대란 때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여신의 경우, 2008년 9월말 1.33%로 2003년의 2.24%에 비해 약 1%p 낮다. 가계대출의 부실채권 비중도 2008년 9월말 0.53%로 2003년 1.76%보다 낮다.

둘째, 국내은행의 예대율이 양호하다. 금융기관의 원화예수금 대비 대출을 나타내는 예대율은 원화예수금에 CD를 포함해서 2008년 9월말 103.2%로 안정 기준인 100%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미국의 112%와 비교해도 약 10%p 이상 낮게 나타난다.

셋째, 무수익여신 비율이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일반은행의 3개월 이상 연체여신을 포함한 무수익여신 비율의 경우 2008년 3월말 0.7%, 6월말 0.6%로, 1998년말 7.4%, 2003년말 2.2%에 비해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넷째, 외국인직접투자가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반전되고 있어 국내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2008년 1/4분기 7억 달러, 2/4분기 2억 달러 유출에서 2008년 3/4분기 16억 달러 유입으로 전환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 측면에서 정부가 유동성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은행, 기업의 자금 경색을 완화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은행 유동성, 중소기업 대출 유동성, PF 대출 건설사 관련 지원, 개인 부채 부담 감소를 위한 대책들이 수립되었다.

■ 부정적 요인

금융기관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요인도 존재한다. 첫째, 국내 금융기관의 과중한 단기 외화부채 문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외화유동성 경색으로 일반은행의 단기 외화 차입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 중장기 차입이 감소함으로써 달러 부족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둘째, 금융기관의 외형 확대 위주의 성장이다. 은행이 고원가성 자금 조달에 의존하여 수익성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외형 확대를 위한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은행의 유동성이 급속하게 나빠진다. 원화대출금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006년 13.9%, 2007년 14.9%, 2008년 2/4분기에는 16.4%까지 상승한다. 반면, 원화예수금 증가율은 2007년 0.1%, 2008년 2/4분기 5.8%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중소기업 및 가계 대출 리스크의 확대이다. 은행의 원화대출금중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6.4%에서 2008년 2/4분기말 42.5%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2008년 11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BSI 전망치는 68로 2003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하여 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의 경우는 가계부채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빠르게 높아지면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악화되었다. 특히 채무상환 능력 저하는 가계의 파산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넷째, 건설업 및 조선업 등의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건설업의 경우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중소건설사의 부실 위험이 2008년 초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위험 수준에 처해 있다. 또한 조선업종의 경우, 대규모 시설 자금을 은행들이 공급해 왔는데 조선업종에 대한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은행의 대출 회수 가능성이 저하되었다.

다섯째,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는 2008년 내내 지속되고 있어 환율 급등과 국내 외화 유동성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2008년 1월에서 11월 2일까지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누적 순매도 규모는 46조 2,626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007년의 27조 2,000억 원보다 19조원 이상 많은 상황이다.

3. 향후 전망과 선제적 대응 과제

금융기관을 둘러싸고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나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질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향후 건전성 악화 요인 증가

우선 세계 경제의 극심한 침체가 예상된다. IMF는 미국 (-0.7%), 일본 (-0.2%), 유로

(-0.5%) 등 선진국 경기가 2009년에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중국, 인도, 아세안-5 등 주요 개도국 경제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둘째로 최근과 같이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은행의 외화유동성 부족이 심각해진다면 수출입기업들의 자금 경색이 심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중소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부실 채권 증가는 BIS 비율 하락세를 가속화시킬 것이고, 현재까지 안정적인 연체율 무이자수익여신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것이고 이는 중소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 선제적 대응

정부는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과제를 시급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첫째, 패스트 트랙 제도와 같이 기존 수립해 놓은 정부 대책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및 가계 부도 증가는 일반은행의 부실로 이어지므로 정부 종합 대책에서 수립한 중소기업 및 가계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패스트 트랙 제도를 통해 우량 기업으로 분류되면, 즉각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민과 영세업자들에 대한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금리 인하와 같은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해서 유동성 공급을 늘려야 한다. 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 실시를 지속함으로써 가계 및 중소기업들의 채무 부담감을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들의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은행의 대출 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신용에 의한 대출이 가능한 크레딧뷰로(CB, Credit Bureau)와 같은 기업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요 확대를 통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유도함으로써 저축은행 및 가계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저축은행과 부동산 PF관련 건설사에 대해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건설사들의 분양가 하락 유도와 구입 가계들을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체계적인 플랜을 통해 앞으로 경기 침체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은행 자율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담당 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기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다섯째,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 부실 악화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기구의 철저한 리스크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은행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금융감독기구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현재 금융기관 회계 기준에는 시장 위험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산위험 등을 포함시켜 부실 위험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 금융위기 확산 방지 대책 >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BIS 하락	- 2008년 9월말 BIS 자기자본비율은 10.79 로 6 월말 대비 0.57% 하락
수익성 감소	- 2008년 1~9월 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4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8조원(-36.2%) 하락
신용등급전망 하락	-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 (Fitch)는 한국 신용등급전망 하향 조정

금융기관 건전성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	
긍정 요인	부정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은행 연체율 2003년 때보다 낮은 수치 - 국내은행 예대율은 103.2%로 기준인 100%보다 높지 않고 미국보다 안정적 - 국내은행 무수익여신 비율은 하락세 -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으로 전환 - 정부의 정책적 노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부채 증가 - 금융기관의 외형확대 위주 성장 - 중소기업 및 가계 대출 리스크 확대 - 건설업과 조선업 등 부도 증가에 따른 은행 부실자산 증가 위험 고조 - 외국인 주식투자의 지속적 유출

향후 건전성 악화 요인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경기침체 등에 따라 수출경기악화와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 고조 · 미국, 일본, 유로 등 선진국 경기 마이너스 성장 및 주요 개도국 경제 하향 조정 -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부실이 증가하게 되면 은행 건전성 악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음

선제적 대응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기수립된 정부 지원 대책들의 조속한 실시 - 둘째, 금융완화정책 지속적으로 유동성 공급 확대 - 셋째,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통한 부동산 연착륙 유도 - 넷째,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플랜 수립 - 다섯째, 금융기관 감독 강화를 통해 도덕적 해이 방지

1.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의해 국내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음

-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 2008년 9월말 자기자본비율은 10.79%로 2008년 6월말보다 0.57%p 하락
 - 국내은행의 자기자본은 2008년 들어 증가 추세였으나, 최근 대내외 시장여건 악화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손실 확대 등의 영향으로 3/4분기 말 기준으로, 전분기대비 6.4조 원 감소
 - 국내 은행 부실채권 비율 : 2008년 9월말 0.81%로 6월말 대비 0.11%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5년말 1.22%에 비해 안정된 상황임

<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및 부실채권 추이 >

(%)

	'06말	'07말	'08.3말*	'08.6말*	'08.9말*
BIS자기자본비율	12.75	12.31	11.20	11.36	10.79
부실채권 비율	1.22	0.84	0.72	0.70	0.81

자료: 금융감독원

주: * 바젤II 기준

-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감소 : 2008년 1~9월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4조원으로 전년동기(13.2조원) 대비 4.8조원(36.2%) 감소
 - 이는 전년동기에 특별히 발생된 출자전환주식 매각이익(세후 3.2조원)을 제외하더라도, 전년동기대비 1.6조원(15.7%) 감소한 수준임
 -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부실여신 증가 등으로 총당금* 적립액이 증가(+2.2조원, 2.5조원→4.7조원)했기 때문임
 -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 기타충당금 등으로 구성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조원)

	'06년	'07년	1~9월(A)*		'08년 1~9월(B)	증감(B-A)*	
국내은행	13.6	15.0	13.2	(10.0)	8.4	△4.8	(△1.6)
일반은행	9.0	10.2	8.6	(7.0)	6.5	△2.1	(△0.6)
시중은행	8.3	9.4	7.8	(6.3)	5.7	△2.1	(△0.6)
지방은행	0.7	0.8	0.7	(0.7)	0.8	0.0	(0.0)
특수은행	4.6	4.8	4.6	(2.9)	1.9	△2.7	(△1.0)

* ()내는 출자전환주식 매각이익 제외시

○ 한편, 한국 국가 평가와 금융회사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 **피치사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중 하나인 피치는 한국수출입은행 등 은행권과 우리투자증권 등 제 2금융권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춤
 - 한국 국가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서도 10일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
 - 11일 산업, 기업, 수출입, 신한, 우리, 하나, 외환, 부산, 경남, 광주 은행과 농협, 우리금융지주의 등급 전망을 내림
 - 우리투자, 한국투자, 대우캐피탈, 현대카드의 제 2금융권의 등급 전망도 하향 조정
- **하향 조정 배경** : 글로벌 경제 부진 속에서 은행의 유동성 부족과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이 하향 조정의 배경임
 - 건설업과 중소기업 상황이 좋지 않아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 피치(Fitch)사의 한국 신용등급 평가 >

구분	신용등급	신용등급 전망	평가일
한국 국가 신용등급	A+	안정적→부정적	11월10일
한국수출은행 외	-	안정적→부정적	11월11일
우리투자증권 외	-	안정적→부정적	11월11일

○ 국내 금융기관 건전성의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을 살펴본 후, 향후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 과제를 도출함

2. 금융기관 건전성 결정 요인

1) 긍정적 요인

① 낮은 금융기관 연체율

○ 금융기관 중 국내은행 연체율은 높지 않고, 부문별로 보았을 때에도 기업 및 가계 연체율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연체율 증가 미미 : 국내은행 연체율은 2008년 9월말 0.97%로 6월말대비 0.18%p 상승하였으나, 2003년말 2.0%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기업대출 연체율은 2008년 6월말 1.02%에서 9월말 1.30%로, 가계대출 연체율은 0.52%에서 0.58%로 소폭 상승에 그쳤고 1998년말과 2003년말보다 현저히 낮게 유지되고 있음
 - 미국 상업은행의 연체율은 2008년 9월말 3.64%로 2007년말 2.55%에서 1%p 이상 상승하여 국내은행의 0.97%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은행권 PF 대출 연체율 안정 : 한편, 은행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2008년 6월말 0.68%로 은행의 9월 연체율인 0.97%보다도 0.29%p 낮게 나타나 PF 대출 부실이 현재화되지 않음

< 국내은행 부문별 연체율 추이 >

(%)

	1998	2003	2005	2006	2007	2008		
						3월말	6월말	9월말
연체 비율	-	2.0	1.24	0.84	0.74	0.91	0.79	0.97
기업대출	8.0	1.9	1.34	1.00	0.92	1.16	1.02	1.30
대기업	-	0.6	0.09	0.49	0.37	0.36	0.30	0.31
중소기업	-	2.1	1.55	1.07	1.00	1.29	1.14	1.50
가계대출	7.9	1.8	1.12	0.70	0.55	0.63	0.52	0.58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국내은행 PF대출 잔액 및 연체율 추이 >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 3월말	2008년 6월말
PF대출 잔액(조원)	25.9	41.8	44.0	47.9
연체율(%)	0.23	0.48	0.86	0.68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중소기업 부실채권 증가율 소폭 상승** : 중소기업 여신의 경우, 1.06%에서 1.33%로 증가세가 가계 여신 증가율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2003년 2.24%에 비하면 약 1%p 가까이 양호하다고 판단됨
- **낮은 가계 여신 부실비율** : 가계여신은 2008년 9월말 0.53%로 2003년 카드 대란 당시보다도 가계 여신 부실비율이 낮음
 - 가계여신 중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 비율의 경우, 2008년 9월말 0.40%에 그치고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 부실이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음

< 국내은행 부문별 부실채권 비율 추이 >

(%)

	1998	2003	2005	2006	2007	2008		
						3월말	6월말	9월말
기업 여신	-	2.70	1.31	0.91	0.80	0.88	0.78	0.92
(중소기업)	-	2.24	1.68	1.12	0.99	1.13	1.06	1.33
가계 여신	-	1.76	0.98	0.68	0.54	0.58	0.50	0.53
(주택담보대출)	-	-	-	-	0.44	0.46	0.38	0.40
신용카드 채권	-	2.63	1.22	0.84	0.96	1.01	0.99	1.10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② 금융기관의 예대율 양호

○ 예대율의 기준인 100%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으며 미국보다 낮음

- **안정적인 예대율** : 금융기관의 원화예수금 대비 대출을 나타내는 예대율의 경우, 원화예수금 중 CD를 포함하면 2008년 9월말 103.2%로 안정 기준인 100%보다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아 불안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미국보다 낮은 수치 : 국내 금융기관 예대율은 일본(CD를 포함)의 74%보다는 높지만, 미국(CD 포함)의 112%보다 약 10%p 이상 낮은 수치임

< 일반은행의 예대율 및 무수익여신비율 추이 >

(%)

	1998말	2003말	2005말	2006말	2007말	2008		
						3월말	6월말	9월말 ^p
예대율 (원화대출금/원 화예수금+CD))	-	88.1	91.1	95.6	104.4	104.8	104.2	103.2

자료: 금융감독원.

③ 무수익 여신비율 하락세

○ 무수익 여신비율은 2003년말 카드대란보다 매우 낮은 수치

- 낮은 무수익여신 비율 : 일반은행의 3개월이상 연체여신을 포함한 무수익여신(NPL, Non-Perfoming Loan)비율은 2008년 6월말 0.6%로 2008년 3월말 0.7%에서 하락하여 부실 정도는 하락
 - 또한 2008년 6월말 무수익여신비율은 1998년말 7.4% 뿐 아니라 2003년말 2.2%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임
 - 일반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의 경우도, 2008년 3월말 0.8%, 6월말 0.7%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일반은행의 손실이 미약한 상황임
 - 그러나 저축은행의 2008년 9월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93%로 2008년 6월말 9.37%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사 부실이 저축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반은행의 무수익여신비율 추이 >

(%)

	1998말	2003말	2005말	2006말	2007말	2008		
						3월말	6월말	9월말 ^p
무수익여신비율	7.4	2.2	1.1	0.8	0.6	0.7	0.6	-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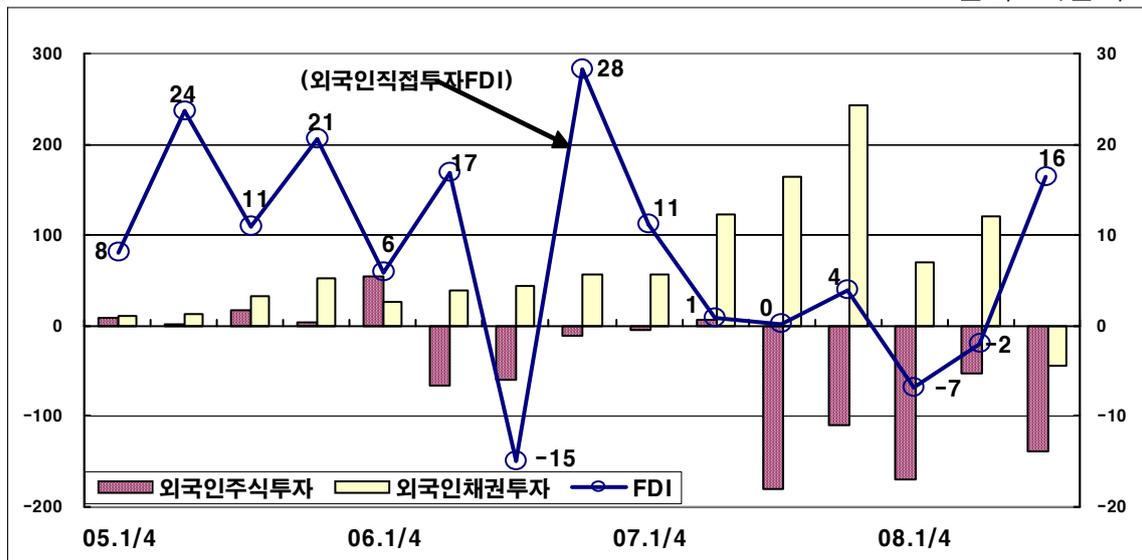
④ 외국인직접투자 반전

○ 외국인직접투자가 2008년 3/4분기에서 플러스로 전환

- 외국인직접투자 반전 : 외국인주식투자가 2007년 3/4분기 이후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으나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초로 전환된 것은 국내 경제 펀더멘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외국인직접투자는 2008년 1/4분기 7억 달러 유출에서 2008년 3/4분기 16억 달러 유입을 기록

< 외국인 투자 추이 >

(단위: 억달러)



자료 : 한국은행, Ecos.

⑤ 정책적 노력 강화

○ 은행의 원화 및 외화 유동성 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의 연체율 악화를 방지

- 우선, 금융위원회가 원화유동성비율 기준을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자산 및 부채에서 1개월로 기간을 축소함으로써 은행권의 자금 여유가 발생
- 한미 통화 스왑 200억 달러 체결과 은행의 대외채무 보증을 통해 외화유동성 공급 환경은 개선

○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피를 막도록 한국은행 및 국책은행의 자금지원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 부도 사태 대비

-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은행 및 국책은행의 자금지원 등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부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
 - 한국은행과 정부는 160억 달러의 외화유동성을 수출입금융에 공급
 -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2.5조 원 증액
 - 산은, 기은 등의 국책은행 자금지원 확대 및 보증기관의 보증규모 확대
 - 중소기업은행 현물출자 통해 중소기업 대출여력 확충
- 특히 PF 대출 관련 건설사의 부실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건설사 지원 프로그램 실시하여 건설사 구제
 -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주단 협약 구성

< 유동성 지원 정책 >

	정 책
은행 유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유동성) 긴급 원화유동성 공급(RP거래 규모 확대) 및 규제완화 - (외화유동성) 한미간 300억 달러 통화 스왑라인 체결 3년간 국내은행의 대외채무 정부 보증 1,000억 달러
중소기업 대출 유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과 정부는 160억 달러의 외화유동성을 수출입금융에 공급 - 총액대출한도 2.5조 원 확대 및 금리 1%p 인하 - 산은, 기은(1조 원 증자) 등 국책은행의 자금지원 확대 - 보증기관의 보증규모 확대 - 중소기업은행 현물출자 통해 중소기업 대출여력 확충
PF 대출 건설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유동성 부족 건설사 지원을 위해 대주단 협약 -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외
개인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 대출만기 연장, 근로자와 서민주택자금 지원 외

○ 개인 부채 상환 능력 약화에 대비 정부는 기준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대출 금리 부담을 축소시킴

- 한국은행은 10월 27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75% 인하하여 4.25%가 되었으며 11월 7일 금통위에서 0.25% 추가 인하
 - 이에 따라 6% 초반이었던 CD 금리가 하락하여 11월 14일 5.56%를 기록
 - 가계 대출 금리 부담이 감소함으로써 가계 부도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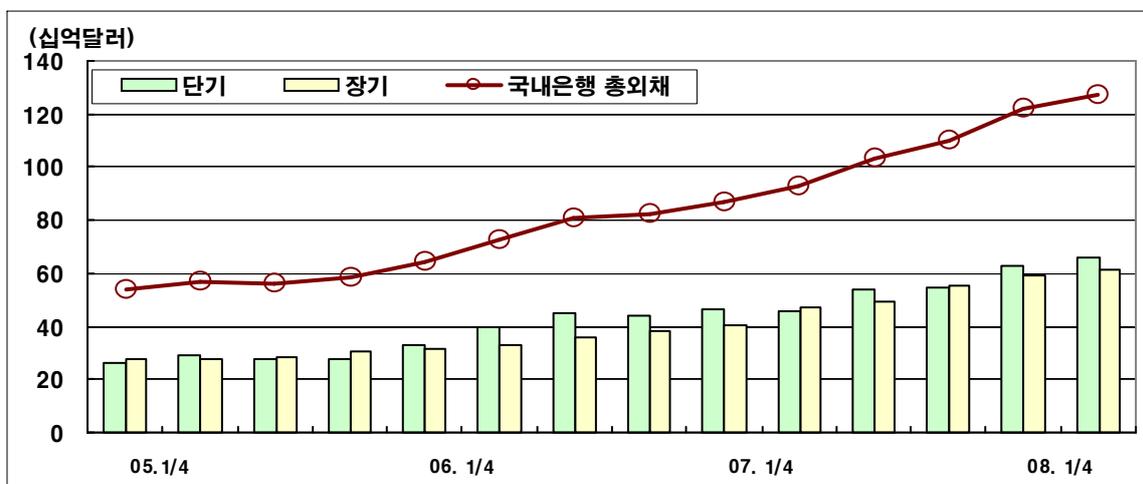
2) 부정적 요인

① 국내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부채

○ 국내은행들의 외화차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단기외채 증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수출기업 선물환매도 및 재정거래차익을 위한 달러화 차입 급증 : 특히 2006~7년 원화강세 기조에 따른 수출 기업 등의 선물환매도 증가에 따른 외환 포지션 조정과 재정거래 차익을 위한 국내은행들의 외화차입이 급증
 - 국내은행의 외채 규모는 2004년 말 505.7억 달러에서 2008년 2/4분기에는 1,273.9억 달러로 151.9%나 상승
 - 동 기간 국내은행의 장기외채는 271.2억 달러에서 613.7억 달러로 126.3% 증가하였고, 단기외채는 234억 달러에서 660.1억 달러로 181.5%나 증가한 가운데 2006년 2분기부터 단기외채가 장기외채보다 많아졌음
 - 한편, 2008년 10~12월까지 국내 은행이 상환해야 하는 외화 차입금은 223억 8,000만 달러로 추정

< 국내은행의 장·단기 외채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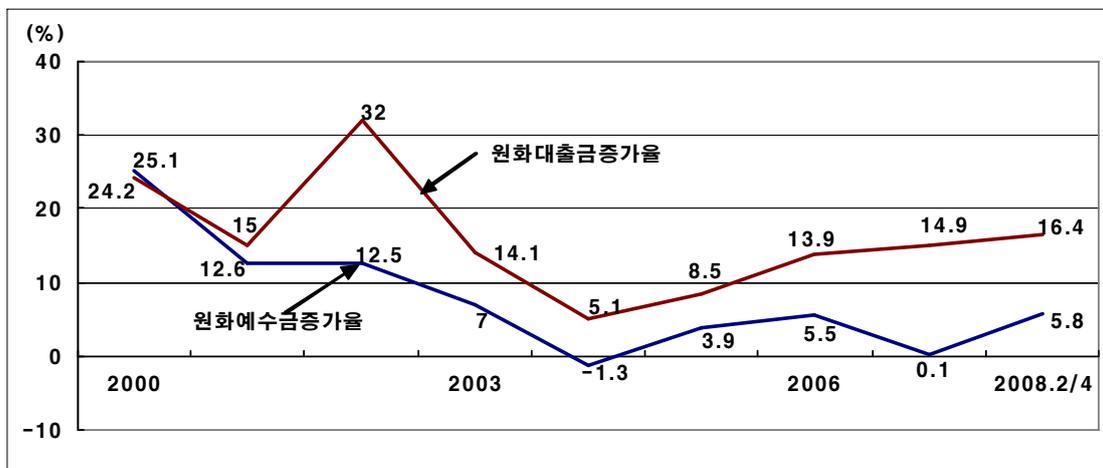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ecos

② 금융기관의 외형 확대 경쟁 심화

○ 은행이 고원가성 자금 조달에 의존하여 수익성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외형 확대를 위한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은행의 유동성이 급속히 악화됨

-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상승 : 은행 수신의 고원가성 자금을 위한 의존이 높아짐
 - 최근 금융시장 불안정성의 확대로 은행으로의 머니 무브(Money Move)가 확대 되었으나, 은행의 수신은 여전히 특판예금과 시장성 수신 등 고원가성에 집중됨
 - 예금은행의 저원가성 자금조달원인 수시입출식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말 28.9%에서 2008년 10월말 잔액 기준으로 25.9%로 약 3%p 급감
 - 반면, 금리가 높은 고금리 특판예금의 확대로 정기예금은 33.9%에서 36.9%로 약 3%p 급증하였고, 시장성 수신도 CD 및 은행채 발행증가로 32.2%에서 32.5%로 0.3%p 소폭 증가
- 외형확대를 위한 대출 급증 : 2006년 이후, 원화대출금증가율이 원화예수금 증가율보다 10%p 이상 급증
 - 원화대출금증가율은 2004년 전년동기대비 5.1%에서 2007년 14.9%로 확대되었고 2008년 2/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16.4% 증가함
 - 반면, 원화예수금증가율은 2004년 전년동기대비 -1.3%로 감소하였고, 2007년에는 0.1% 증가에 그쳤으나 2008년 들어 예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

< 예금은행의 예수금증가율과 대출금증가율 >



자료: 금융감독원

- **은행의 중장기 유동성위험 상승** : 국내은행의 중장기적인 유동성위험 감내 능력을 나타내는 순현금자본포지션*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 2008년 6월 말 기준으로 순현금자본포지션은 5.7%로 전년말(9.2%) 대비 3.5%p 낮아졌고, 2005년 말(16.1%) 대비로는 10.4%p 급락
 - 이는, 은행의 수신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성 정기예금과 특판예금에 주로 의존하나 대출은 중장기로 이루어지며 은행의 여수신간 만기 미스매칭이 확대된 것에 기인함
 - * 순현금자본포지션(net cash capital position)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은행의 유동성 상황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 비율이 낮으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간주됨
- **위험가중자산 증가** : 한편, 환율 상승에 따라 시장위험성이 증가하며 위험가중자산이 전분기대비 4조 원 증가함

< 국내은행의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 규모 >

(단위: 조 원, %)

	2006				2007				200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¹⁾
자기자본	107	112	117	119	124	131	135	133	135	136	130
위험가중자산	809	857	897	930	958	1,015	1,060	1,082	1,203	1,198	1,202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 2008년 3/4분기 말 자료는 금융감독원 9월말 BIS비율 발표 보도자료 인용 추정치임

* 위험가중자산은 자산을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 유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데 이는 은행들의 우량자산 보유 동기를 높여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③ 중소기업 및 가계 대출 리스크 확대

- **중소기업 및 가계의 대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의 차입금 의존도가 확대와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저하로 파산 리스크가 증가됨**
- **중소기업 및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지속적인 확대** : 일반은행의 중소기업 및 가계 대출의 비중이 2005년 이후 크게 확대됨

- 일반은행의 원화대출금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6.4%에서 2008년 2/4분기 말 42.5%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2005년 25.9%에서 2006년 27.5%까지 확대되다가 2008년 2/4분기 말 24.1%로 다소 축소되었으나, 잔액 규모로는 116조원에서 152조원으로 36조원 증가함
- **중소기업의 차입금 의존도 확대** : 2007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차입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상승
- 중소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2007년 말 43.65%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부채비율도 129.08%로 2002년에 비해 상당히 낮아짐
 - 그러나, 금융기관의 대출확대전략과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수요 증가 및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차입금의존도는 2007년 말 32.0%로 전년말대비 1.08%p 상승하였음

< 중소기업(제조업)의 재무구조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자기자본 비율	대기업	30.81	33.15	43.69	46.84	52.17	53.73	53.91	53.98
	중소기업	35.75	40.86	39.67	40.39	41.9	41.51	42.99	43.65
부채비율	대기업	224.59	201.63	128.88	113.49	91.68	86.13	85.49	85.25
	중소기업	179.71	144.74	152.08	147.57	138.65	140.9	132.59	129.08
차입금 의존도	대기업	43.64	41.96	31.2	25.85	20.41	19.08	18.13	18.03
	중소기업	35.04	34.55	32.89	33.46	31.92	30.79	30.92	32.0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가계의 채무부담능력 저하 지속** : 가계부채증가율이 가계소득증가율보다 빠르게 높아지면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계속 악화
- 금융시장 부진에 따른 금융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금융부채대비 자산 비율이 2007년말 231%에서 2008년 6월말 기준 222%로 9%p 하락함
 - 가계의 가용소득에 따른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와 이자지급 비율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2008년 6월 말 기준으로 전년말대비 각각 5%p와 0.4%p 상승한 153%와 9.8%를 기록

- 아울러,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DSR)도 가처분소득 감소와 이자지급 비용 상승으로 2005년 15.3%에서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20.7%로 5.4%p 급등함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지표>

	2005	2006	2007	2008.6월말
금융자산/금융부채	233	227	231	222
금융부채/ 개인가처분소득	135	143	148	153
개인이자지급/ 개인가처분소득	7.8	9.3	9.4	9.8
원리금상환부담률(DSR)	15.3	19.3	20.2	20.7
이자지급액/연간소득	10.2	12.0	13.2	13.1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08.10)

주: 2008년 6월말 기준 개인가처분소득은 한국은행 추정치를 적용한 것임.

- **파산리스크 증가** :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와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는 은행의 대출부실 증가로 연결되어 파산 증가 및 은행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음
- 2008년 11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BSI(기업경기조사) 전망치는 68로 2003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함
-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4년 이후 대폭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9월말 기준으로 8만 9,049 건에 달함

< 개인파산 신청 연도별 추이 >

년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9
건 수	329	672	1,335	3,856	12,300	38,773	123,691	154,039	89,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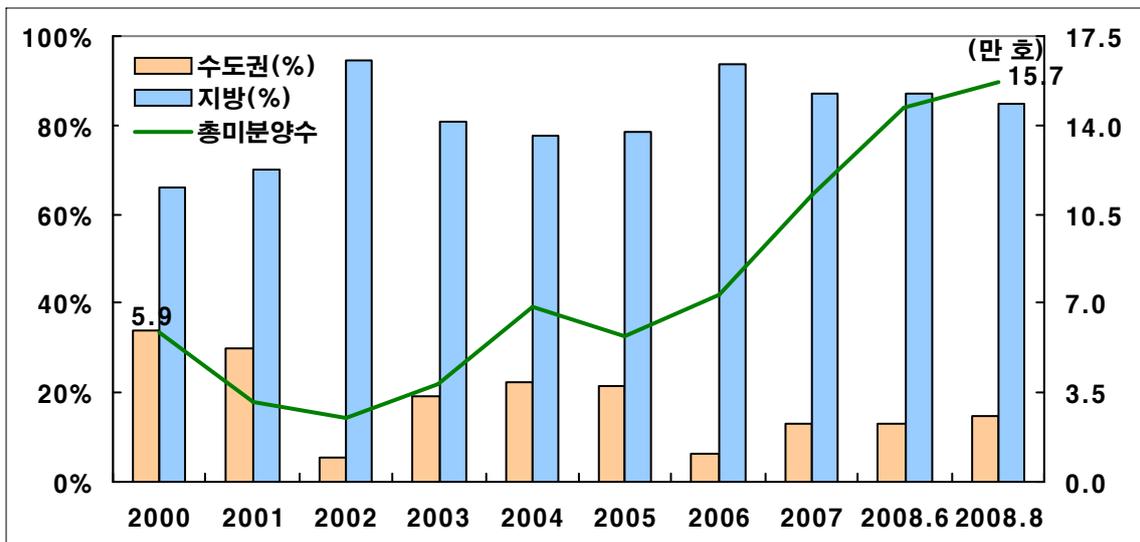
자료: 대법원

④ 건설업 및 조선업 등 부실 위험 증가

-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며 건설업과 조선업 부실이 은행권의 자본건전성을 저하할 수 있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음

- **미분양 주택 급증** : 최근 주택경기 침체에 따라 전국 미분양 주택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수도권 미분양 주택도 전년말 대비 대폭 증가
 - 2007년말 미분양주택은 전국 11만 2,254 가구에서 2008년 8월 현재 15만 7,291 가구로 8개월 만에 4만 5,037가구가 증가
 -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실질 미분양주택은 공식통계보다 10만 가구나 많은 약 25만 가구이며 금액으로는 30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음

< 미분양 주택 추이 >



자료: 국토해양부, 「2008년 8월 미분양 현황」, 2008년 10월 29일.

- **높은 건설사 부채비율** : 부동산경기 침체로 건설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건설업체들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이 상승
 - 2008년 1~10월 건설업 부도업체 수는 441개사로 전년동기대비 46개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10월에는 65개로 전월대비 16개 급증
 - 시공능력 상위 30대 건설업체 가운데 10개사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200위 업체 가운데 신용평가를 받고 있는 41개 업체의 평균 부채비율은 189%로 높지 않은 편이지만 PF 우발채무를 감안한 부채비율은 429%로 급등하는 것으로 알려짐¹⁾

1) 굿모닝 신한증권, 건설부문 분석, 2008년 11월 18일 참조.

< 시공능력 상위 30대 건설업체 부채비율 >

구분	100% 미만	100~200% 미만	200~300% 미만	300% 이상
업체수	4	16	7	3

자료: 2008년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료.

- **높은 저축은행 연체율** : 건설업의 경우, 미분양 사태와 관련 중소건설사의 부실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면서,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08년 6월말 저축은행의 PF 대출금은 12.2조 원이고 PF 대출 연체율은 14.3%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우려가 되고 있음
 - 저축은행의 대출금은 2008년 6월말 약 50조 원으로 이중 PF대출은 약 12조 원으로 대출금 중 비중은 24%에 달함

- **조선업종 시설 자금 대출 우려** : 은행들은 조선업종이 호황을 보이는 동안 대규모 시설 자금을 공급해 왔기 때문에 중소형 조선사들이 부실화되면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임
 - 은행들은 중소형 조선사들에게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행하였는데 조선사들이 부도나면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것임

⑤ 외국인 주식투자 유출 증대

○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는 2008년 내내 지속되고 있어 환율 급등과 국내 외화 유동성 부족을 야기할 수 있음

-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도는 미국 신용위기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확보와 국내 경기둔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 기인함
 - 해외 주요 투자기관들은 미국 모기지 부실로 인해 자금 수급의 문제에 직면하자 현금 확보를 위해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주식을 처분하여 본국으로 송금
 -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급등과 경상수지 악화 등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국내 경제 구조로 인해 국내 경기가 급속히 둔화되며 불안감 확산

- **주식 매도세 2008년 지속** :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더불어 국내 원·외화 유동성 문제가 대두되며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는 2008년 내내 지속되고 있음
 - 2008년 1~11월 21일까지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누적 순매도 규모는 46조 2,626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007년의 27조 2,000억 원보다 19조 원 이상 증가
 -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말 32.4%에서 2008년 11월 14일 기준 29.0%로 낮아지면서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외국인 순매도 급증의 영향으로 2007년 말 1,897.13p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2008년 9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전년말대비 47.1%이상 급락

< 주가 및 외국인 주식투자 추이 >

구분	2007년	2008년				
		1/4	2/4	3/4	10월	'08.1-11/21
KOSPI	1,897.1	1,703.9	1,674.9	1448.1	1113.1	1,003.7 ¹⁾
외국인 순매수(조원)	-27.2	-16.1	-7.4	-12.8	-4.9	-46.3
외국인 보유비중(%)	32.4	30.4	30.7	29.6	30.2	29.0

자료 : 한국은행 Ecos., 한국증권거래소

주 : 1) 11월 21일 코스피 마감지수임

2) KOSPI와 외국인 보유비중은 말일 자료임

3) 외국인 순매수는 기간 중 누적액, 마이너스는 순매도 규모를 의미함.

4. 향후 전망과 선제적 대응 과제

1) 향후 건전성 악화 요인 증가

○ 현재까지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크게 악화되고는 있지 않으나,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질 경우,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은 2009년 세계 경제 전망을 하향 수정
 - 미국(-0.7%), 일본(-0.2%), 유로지역(-0.5%) 등 선진국 경기가 2009년에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인도, 아세안5 등 주요 개도국 경제도 하향 조정

- 최근과 같이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 지속으로 은행의 외화유동성 부족이 심각해진다면, 수출입기업들의 자금 경색이 발생할 것임
 - 이러한 금융불안 상황으로 인해 기업 및 가계 대출 리스크가 높아진다면, 은행기관의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실물경제 침체로 기업들의 부도가 증가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것임
 -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중소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임
 - 부실채권 증가로 이미 하락 추세인 BIS 비율은 물론, 무이자수익여신, 고정이하여신 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가 되면 중소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은 감소할 것임
-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내부 요인이 악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2) 선제적 대응 과제

○ 첫째, 패스트 트랙 제도와 같이 기존 수립해 놓은 정부 대책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 및 가계 부도 증가는 일반은행의 부실로 이어지므로 정부 종합 대책에서 수립한 중소기업 및 가계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임
 - 특히 패스트 트랙 제도를 통해 우량 기업으로 분류되면, 즉각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해야 함
-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민과 영세업자들에 대한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정책금리 인하와 같은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해서 유동성 공급을 늘려야 할 것임

- 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 실시를 지속함으로써 가계 및 중소기업들의 채무 부담감을 줄여야 함

- 또한 은행들의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은행의 대출 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신용에 의한 대출이 가능한 크레딧뷰로(CB, Credit Bureau)와 같은 기업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셋째, 수요 확대를 통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유도함으로써 저축은행 및 가계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저축은행과 부동산 PF관련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건설사들의 분양가 하락 유도 및 구입 가계들을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
- 넷째, 체계적인 플랜을 통해 앞으로 경기 침체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필요함
 - 은행 자율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담당 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기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
- 다섯째,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 부실 악화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기구의 철저한 리스크 감시가 이루어져야 함
 - 현재 은행들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
 - 특히 현재 금융기관 회계 기준에는 시장 위험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산위험 등을 포함시켜 부실 위험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임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10월 수출 한 자릿수 증가율 기록

- 관세청이 발표한 10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8.5% 증가한 373.7억 달러, 수입은 10.4% 증가한 361.6억 달러를 기록하여 신고수리기준 무역수지는 12.1억 달러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은 선박(119.8% 증가),과 철강(25.6% 증가)한 반면 반도체(26.0% 감소)와 자동차(18.4%)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냄
- 지역별 수출은 대 중국 수출(2.6%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 미국 수출(5.3% 증가), 대 EU 수출(5.7% 증가), 대 동남아 수출(0.9% 증가)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함
- 수입의 경우 원자재가 20.6%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소비재(5.1% 감소)와 자본재(1.1%)는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감소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간	3/4	4/4	1/4	2/4	3/4	10월	
경기	경제성장률	5.1	5.0	5.1(1.5)	5.7(1.6)	5.8(0.8)	4.8(0.8)	3.9(0.6)	-	
	수요	소비재판매	4.1	5.3	7.1	4.5	3.9	2.5	1.0	-
		설비투자추계	8.9	8.6	0.7	9.2	-0.9	0.1	6.2	-
		건설수주	9.0	19.3	-5.6	29.5	-3.9	-6.1	-22.8	-
		수출	14.4	14.1	9.4	18.2	17.4	23.1	27.1	8.5
	공급	광공업생산	8.4	6.8	5.9	10.8	10.6	8.6	5.6	-
		취업자수 (만명)	2,315	2,343	2,361	2,358	2,305	2,387	2,373	2,385
		실업률	3.5	3.2	3.1	3.0	3.4	3.1	3.0	3.0
		수입	18.4	15.3	7.3	25.9	28.9	30.5	43.0	10.4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54	60	44	32	-52	-1	-84	-
무역수지 (억\$)		161	146	45	27	-65	3	-80	-20	
물가	생산자물가	0.9	1.4	1.2	3.0	5.1	9.0	11.3	10.7	
	소비자물가	2.2	2.5	2.3	3.4	3.8	4.8	5.1	4.8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

□ 금융 동향 : 금융시장 혼조세 재연

○ (해외 금융 시장) 미국 국채 금리 하락세 지속

- 금리: 미국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감으로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주말대비 대비 대폭 하락 (국채 10년물 : 3.74→3.01%)
- 환율: 달러화는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는 소식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에 대해 소폭 강세를 보인 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속되면서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 시현 (\$/€ : 1.2605→1.2453, ¥/\$: 97.14→93.69)

○ (국내 금융 시장) 금융시장 혼조세 재연

- 주가: 실물경기의 침체 우려감 확산으로 다시 948p까지 하락하였으나, 주중 반 미국의 추가적인 주택 구제지원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급반등하여 1,000p를 넘어섰으나 전주말 대비 대폭 하락 (1,088.3→1,003.7)
- 금리: 한은의 채권시장안정 펀드 참여 전망, 추가 유동성 공급 조치(지준율 인하 등)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대폭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5.40→4.99%)
- 환율: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확산되고 실물경기 침체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감으로 외국인 투자들의 순매도세고 지속되면서 전주말 대비 대폭 상승 (1,399.2→1,495.0)

○ (전망) 장기침체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 시장 불안정 지속

< 주요 금융 지표 >

		2007			2008				
		2/4	3/4	4/4	1/4	2/4	3/4	11.14	11.21
국내	거라소 주가	1,743.6	1,946.5	1,897.1	1,703.9	1,674.9	1,448.1	1,088.3	1,003.7
	국고채3년(%)	5.26	5.46	5.74	5.10	5.90	5.74	5.40	4.99
	원/달러	923.8	915.1	936.1	990.4	1,046.0	1,207.0	1,399.2	1,495.0
해외	DOW	13,409	13,896	13,265	12,263	11,350	10,850	8,497	7,552
	Nikkei	18,138	16,786	15,308	12,526	13,481	11,259	8,462	7,703
	미국채10년(%)	5.02	4.59	4.02	3.87	3.97	3.82	3.74	3.01
	일국채10년(%)	1.88	1.69	1.51	1.45	1.60	1.47	1.50	1.45
	달러/유로	1.3542	1.4267	1.4593	1.5788	1.5848	1.4092	1.2605	1.2453
	엔/달러	123.18	114.80	111.65	99.70	106.22	106.11	97.68	93.69
	두바이(\$/바렐)	66.42	76.64	89.06	97.66	136.65	90.60	49.51	44.89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11.20) 기준